LG하우시스 건자재 에너지효율 우수

창호 3종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 획득 … 열손실률 포함 3개 항목 통과

LG하우시스의 건자재가 미국 에너지스타(Energy Star)의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입증했다.

LG하우시스(대표 한명호)는 국내 최초로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효율성 평가제도인 에너지스타 인증을 획득했다고 3월29일 밝혔다.

에너지스타 인증은 미국 에너지국(DoE)과 환경보호청(EPA)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로, 사무용 기기, 조명, 가전기기, 건축자재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창호제품 가운데 입면분할창(PLS220), 고단열 시스템창(PTT237), 멀티 발코니창(D265M) 총 3개 제품의 열손실률, 태양열 전도치수, 가시광선 투과도 등의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시켜 에너지스타 마크를 획득하게 됐다.

LG하우시스 창호재사업부장 박현신 상무는 "인증마크 획득으로 창호 기술력을 해외에서 인정받아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LG하우시스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진공유리를 출시했으며, 단열성이 우수한 아르곤(Ar)·크립톤(Kr) 가스를 넣은 복층유리, TPS 단열간봉을 적용한 고단열 창호 등을 선보이며 창호를 통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29>